

KEF 경총
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「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」 결과

2024. 3.

< 요약 >

□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

※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(공기업 제외, '22년 기준) 및 경총 주요 회원사 중 설문에 응답한 50개사 분석

①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근로자 업무몰입도 점수 평균 82.7점

- ▶ 1일 업무시간(8시간) 중 약 17% 업무가 아닌 사적활동에 소비
- ▶ '1시간 미만 사적활동(87.5점 이상)' 22.4%, '1~2시간 사적활동(75점~87.5점)' 65.3%, '2시간 이상 사적활동(75점 미만)' 12.2%,

② 조사기업 대부분(93.9%)은 업무몰입도 '향상 여지 있다'고 응답

- ▶ 업무몰입도가 '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'고 응답한 기업은 93.9%, '더 이상 향상될 여지가 없다'고 응답한 기업은 6.1%에 불과

③ 근로자의 사적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, 절반 이상(54%)

- ▶ 업무시간 내 사적활동 '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' 38.0%, '적극적 관리' 26.0%, '거의 관리하지 않음' 16.0%, '성과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관리 필요성 없음' 14.0%, '기타'(부서장 재량 등) 6.0% 순으로 조사

④ 인사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에서 업무몰입도 높게 나타나

- ▶ '성과관리 체계 잘 구축' 89.4점 VS '사적활동 거의 관리하지 않음' 74.4점
- ▶ 'PC체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' 85.8점, '기타'(부서장 재량 등) 85.7점, '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' 81.1점 순으로 조사

⑤ 자사의 평균 근로시간 정도는 '적당하다'는 평가 가장 많아(70.0%)

- ▶ 응답기업 70.0%가 자사 사무직 근로자들이 현재 근로시간이 '적당하다'고 평가, '다소 많다'는 응답은 24.0%, '다소 적다'는 응답은 6.0%

근로자 업무몰입 정도

- 전체 평균 점수 **82.7점**
- 1시간 미만 사적활동(87.5점 이상) **22.4%**,
1~2시간(75~87.5점) **65.3%**, 2시간 이상(75점 미만) **12.2%**

-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「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자사 근로자(사무직)의 업무몰입도를 평균 82.7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이는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약 17%를 업무가 아닌 사적활동에 소비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의미함.

※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(공기업 제외, '22년 기준) 및 경총 주요 회원사 대상 설문 조사 (응답 기업 50개사, 조사 결과는 응답결과의 산술평균 값임)

- 응답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자사(自社)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몰입도를 평균 82.7점(100점 만점)으로 평가함.

· [본 조사에서의 “업무몰입도” 기준] 업무시간 동안 사적인 활동(흡연·인터넷서핑·사적외출 등)을 하지 않고 업무에 사용하는 정도(시간)를 의미, 다만 이는 사적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란 의미로 질적인 집중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음.

(ex. 업무시간 8시간 중 1시간 정도 사적활동을 한다면 업무몰입도는 약 87.5점<7시간/8시간×100>)

- 이러한 결과(평균 82.7점)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가운데 평균적으로 17%(1시간 20분) 정도를 업무외 사적활동에 소비하는 것을 의미함.
- 1일 업무시간(8시간) 중 사적활동으로 평균 1시간 미만(87.5점 이상)을 소비하는 기업은 전체의 22.4%,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(75점 이상 87.5점 미만) 65.3%, 2시간 이상(75점 미만) 12.2%로 조사됨.

<그림 1>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현황

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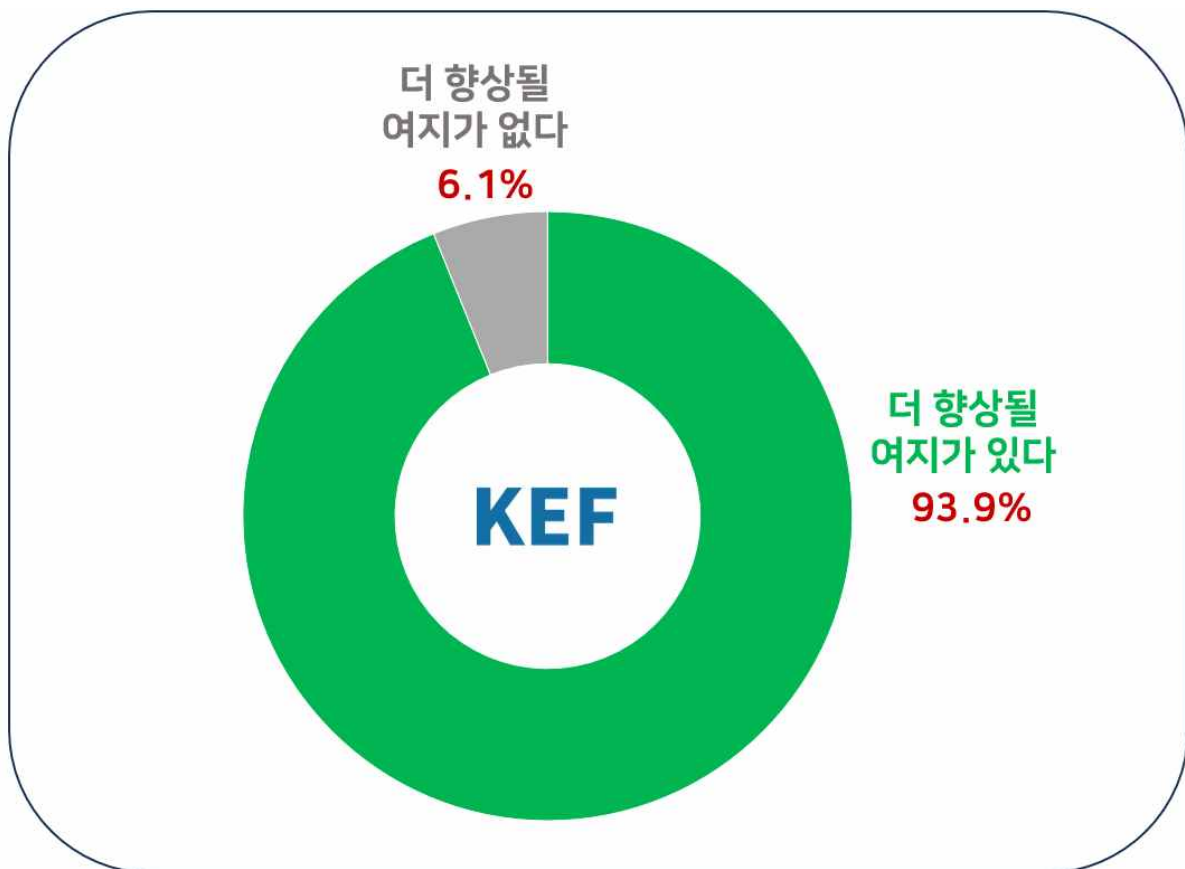
업무몰입도 향상 여지

- ▶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 93.9%
- ▶ 더 향상될 여지가 없다 6.1%

○ 응답기업 중 93.9%는 자사 근로자의 '업무몰입도가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답해,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- 업무몰입도가 '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'고 응답한 기업은 93.9%로 나타났다으며, '더 이상 향상될 여지가 없다'고 응답한 기업은 6.1%에 불과하였음.

<그림 2> 업무몰입도 향상 여지



3

근로자의 사적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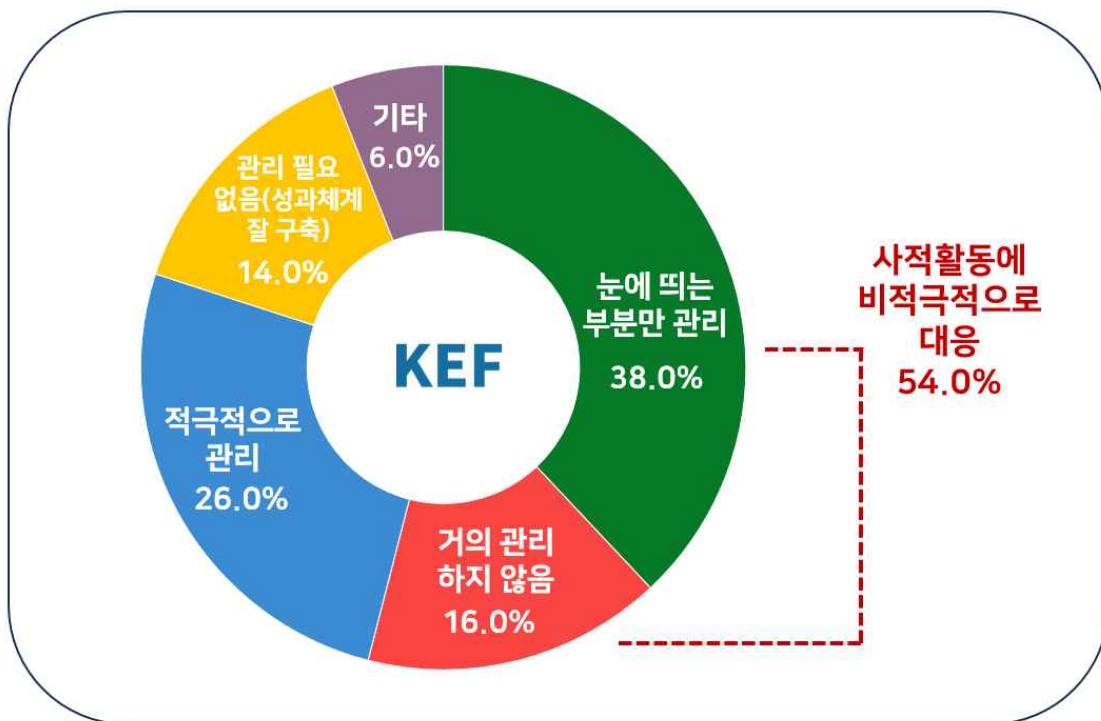
- ▶ 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 38.0%
- ▶ 적극적 관리 26.0%
- ▶ 거의 관리하지 않음 16.0%
- ▶ 관리 필요성 없음 14.0%

○ 근로자의 업무시간 내 사적활동에 대해, 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하거나 거의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이 넘는 것(54.0%)으로 나타남.

- '잡은 자리 비움 등 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' 38.0%, 'PC체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' 26.0%, '근로자 반발 등의 이유로 거의 관리하지 않음' 16.0%, '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관리 필요성 없음' 14.0%, '기타' 6.0%(ex. 부서장 재량) 순으로 조사됨.

⇒ 특히, 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한다는 기업(38.0%) 및 거의 관리하지 않는다는 기업(16.0%) 등 근로자의 사적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기업의 인사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

<그림 3> 업무몰입 관련 회사의 대응 방식

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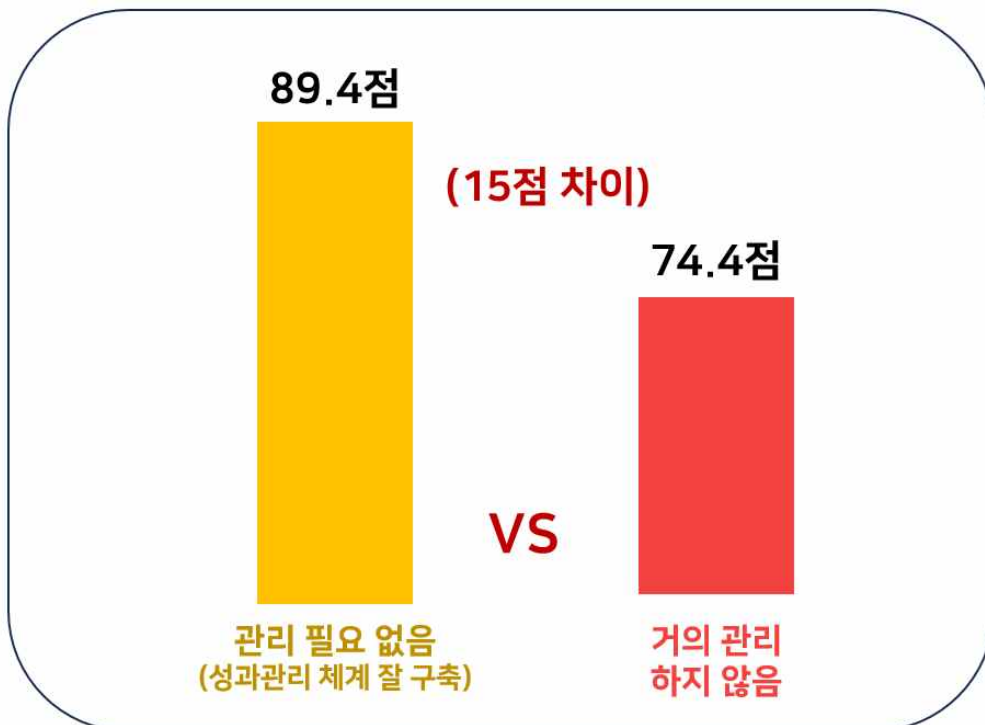
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따른 근로자 업무몰입 차이

- ▶ 성과관리 체계 잘 구축되어 관리 필요성 없음 89.4점
- ▶ 사적활동 거의 관리하지 않음 74.4점

○ ‘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관리 필요성이 없는 기업’의 업무몰입도는 89.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, ‘근로자 반발 등의 이유로 거의 관리하지 않음’으로 응답한 기업은 74.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, 뚜렷하게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.

- 성과체계가 잘 구축된 기업은 업무시간에 사적활동이 평균 1시간 미만인 반면, 사적활동을 거의 관리하지 않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을 사적활동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

<그림 4>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따른 업무몰입 차이 비교



- 다음으로 'PC체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'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업무몰입도 점수 85.8점, '기타'(부서장 재량 등) 85.7점, '눈에 띄는 부분만 관리' 81.1점 순으로 나타남.

⇒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몰입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,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인사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

근로시간의 장단(長短)에 대한 근로자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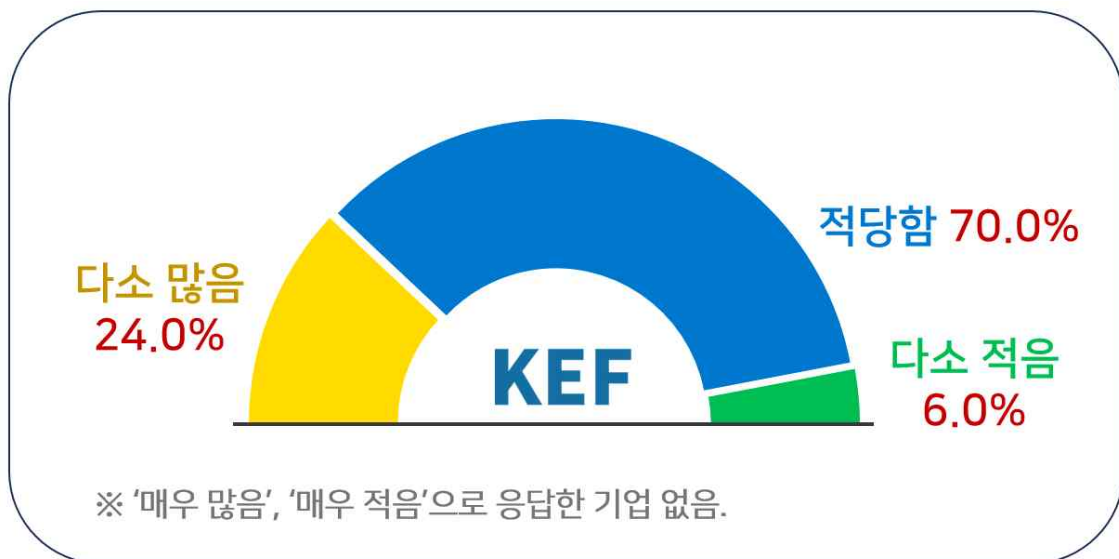
▸ **적당함 70.0%** ▸ **다소 많음 24.0%** ▸ **다소 적음 6.0%**

- 응답기업 70.0%가 자사 사무직 근로자들이 현재 근로시간이 '적당하다'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으며, '다소 많다'는 응답은 24.0%, '다소 적다'는 응답은 6.0%로 나타났다.

※ '매우 많음'이나 '매우 적음'으로 응답한 기업은 없었음.

- 동 조사결과에 비춰보면,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들(사무직)이 자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

<그림 5> 자사 근로시간 장단(長短)에 대한 평가



- 조사 개요 -

1. 조사목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「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」는 매출 상위 주요 기업 등에서 평가하는 자사 근로자의 업무몰입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업무시간 및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민간기업(2022년 기준) 및 경총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응답 기업 50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3. 조사방법

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와 이메일 등을 통한 자계식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음.